

전일동향

전일대비 5.90원 하락한 1,447.50원에 마감

1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.90원 하락한 1,447.5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.30원 하락한 1,452.10원에 개장했다. 장 초반 환율은 양방향 수급 대치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. 그러나 환율은 유로화 및 위안화 반등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 전환했다. 결제 수요 및 저가 매수에 환율의 낙폭은 제한되며, 1,447.5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8.3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39.78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52.10	1455.00	1446.60	1447.50	1450.50
엔화	941.07	947.89	937.13	947.60	-	
유로화	1510.30	1514.94	1501.49	1514.29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97	-5.4	-12.67
결제환율(수입)	-0.4	-4.52	-10.95	-24.61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상호관세 실행 유보에...1,43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9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47.50) 대비 7.70원 하락한 1,437.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미 상호관세 부과 시점 연기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트럼프는 상호관세 조치에 서명했다. 또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 한국과 일본 등이 포함될 수도 있으며, 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. 그러나 상호관세가 즉각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4월 1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소식에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. 관세 부과 시점 지연 및 러-우 종전 가능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달러화는 약세폭을 확대하며, 0.86 하락한 107.07을 기록했다. 뉴욕증시는 위험선호 심리가 유입되며, 다우지수 +0.77%, S&P +1.04%, 나스닥 +1.50% 상승 마감했다. 금일 환율은 달러 약세 및 위험선호 분위기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수출업체 네고, 중공업 수주 환헤지 등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저점 인식에 따른 결제 수요 등 매수세 유입에 환율의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34.00 ~ 1444.20 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138.33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7.7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4711.43, +342.87p(+0.77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22.17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4098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